



# 해양부,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본격 실시

##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만물류 전문인력 입학식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석사과정 입학식이 9월2일 한국해양대학교 한진홀에서 거행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장기과정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항만물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교육과정보다 심화된 재직자 중심의 장기교육(대학원 석사)과정으로서 해사산업대학원에 항만물류학과(항만물류관리전공과 국제물류경영전공)에 매학기 20명씩 연간 40명의 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장기과정의 주요 사업목적은 글로벌 물류 환경을 이해하고 물류전략 수립이 가능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관리자의 양성한 것으로서 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외부기관과의 연계교육 및 현장중심교육 실시(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물류협회, 한국무역협회 부산지회 등과의 실무중심 교육 지원)와 아울러 해외물류전문 기관과의 연계교육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경쟁력있는 글로벌 항만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하고 있다.

또 단기과정은 항만물류 관련 실무 재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70시간(매일 6시간)의 집중적인 집합교육(대학의 항만물류전공 교수, 실무전문가, 해외석학 등이 23강좌 강의 및 실습, 현장방문 강의 6회 이상 실시: 방문기관의 전문가 특강 및 실습 실시, 각 과정별 1회 이상의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환경을 이해하고 항

만물류 산업을 정확히 진단, 평가하고 적절한 물류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무전문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단기교육과정은 부산항과 광양항의 항만물류 전문인력 교육을 해양대와 여수대학 그리고 동명대학이 상호 교육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해 실시함으로써, 항만물류 특성화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날 이인수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축사를 통해 “내년부터 부산신항의 개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동북아에서 항만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요한 시점에 글로벌 항만물류전문인력이 시급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본 사업을 시행했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해양대에서 이에 부응하여 경쟁력있는 항만물류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국가와 부산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사업단은 기존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교육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산·학 협력체계를 통한 실무중심의 교육, 현장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무전문가의 실무분야별 교육 전담 및 항만물류 전문인력 수급계획에 따른 교육 진행 등으로 부산신항 개장과 더불어 글로벌 항만물류 전문인력이 절대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항만경쟁력의 제고, 부산항만물류산업의 발전 및 부산신항의 동북아 물류거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